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간 유예...분할납부제 확대

산업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
평균 사용량 313kWh까지 인상 전 단가로
소상공인 요금 최대 50% 6개월 분납 가능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요금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8.0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 당 1.04원을 인상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의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대상자의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

까지의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기존부터 운영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도 지속 지원한다. 월 8000~2만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적용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올해 6~9월 한시 시행되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 분

납할 수 있다. 10월에는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kWh 당 최대 100원까지 지급하고 가스요금은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절감량 기준을 7% 이상에서 3~5% 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효율을 제고해

전력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국민여러분들의 요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토록 한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영일기자**

대상웰라이프, 당뇨 환자용 '마일드초코' 출시



대상웰라이프는 환자용 식품 브랜드 '뉴케어'가 국내 처음으로 초코맛 당뇨 환자용 균형영양식 '당플랜 프로 마일드초코'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초콜릿 등 단것을 먹고 싶은 고혈당 소비자가 당 걱정 없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당뇨영양식이

들은 정백당(흰설탕)을 함유해 초코맛을 낸 시중 음료를 섭취하기 어려웠다. 신제품은 설탕 대신 팔라티노스를 사용하고 네덜란드산 코코아 파우더를 사용했다. 당플랜 프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공동 개발한 '당플랜'의 독자적인 영양 설계 레시피 'MPB 설계'를 적용했다. MPB는 ▲단일불포화지방산(M) ▲설탕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천천히 분해돼 흡수되는 팔라티노스(P) ▲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여주와 돼지감자 추출 분말(B)을 뜻한다. 당플랜 프로 마일드초코의 한 팩 열량은 100kcal, 당 함유량은 1g 미만이다. 대상웰라이프 관계자는 "당플랜 프로 마일드초코는 자녀의 과도한 당 섭취가 걱정되는 부모님, 젊은 당뇨환자의 니즈를 고려해 전문적 노하우를 담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입맛과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당뇨환자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옥기자**

다. 최근 늘고 있는 소아 당뇨, 임신성 당뇨를 포함한 젊은 당뇨환자와 당뇨 전 단계인 고혈당 소비자를 위한 간식으로 개발했다. 그간 단순당 섭취를 피해야 하는 당뇨환자

'사전계약' EV9, 치밀해진 옵션 구성...“독일까, 약일까”

HDP·원격 주차 등 신기술 최상위 트림서만 지원



기아의 대형 전기 SUV EV9의 사전 계약이 이달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기아는 새로운 플래그십 차량인 EV9을 출시하며 어느 때보다 옵션을 치밀하게 구성해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이달 3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한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두 번째 모델로 가장 혁신적인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SUV다. 이 사전 계약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차량 가격이다. 플래그십 EV에 걸맞은 동력 성능과 최고 수준의 신기술이 적용된 EV9은 개별

소비세가 3.5%로 친환경 자동차 세제 혜택 기준 7671만원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 EV9을 사는 데 필요한 금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이라 관측이다. EV9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아의 신기술이 사실상 모두 '옵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EV9에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3단계(특정 상황에서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제한적 자율주행 단계)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HDP, Highway Driving Pilot)' 기능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기능을 EV9 4륜 구동 모델, 그 중

에서도 최상위 트림인 GT-Line(8781만원부터)에서는 750만원을 더 줘야 한다는 점이다. 자율주행 3단계를 탑재하면 EV9은 차값이 최소 '9531만원'으로 급등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할 경우 EV9 가격은 '1억'을 훌쩍 넘는다. 기아 차 중 품용선 기준 1억원을 넘는 차는 EV9이 처음이다. 기아는 EV9을 통해 FoD(Features on Demand, 구독 서비스)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구독 서비스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차량 소프트웨어 신기능을 선택적으로 구매해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확장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고객 경험을 다양화하겠다는 게 기아의 목표다. 김도한 기아 커넥티드상품전략팀 책임 매니저는 "FoD 서비스가 도입되면 차량 구입 이후에도 새로운 기능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며 "차량 구입 시점에 모든 옵션 사양을 무조건으로 선택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 사이에선 구독 서비스가 결국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EV9에서 경험할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기능은 최상위 트림인 GT-Line에선 기본 제공되나, '에어'나 '어스' 트림에선 '평생 이용'하려면 5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연 구독 가격은 12만원, 월 구독에 1만2000원의 비용도 필요하다. 모든 트림에서 '스타일' 옵션을 선택해야 사용할 수 있는 라이팅 패턴을 평생 이용하려면 18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슬비기자**

하나투어, '요즘 여름휴가의 답' 기획전 실시

하나투어가 6월부터 8월까지 본격적인 여름 방학과 휴가 기간을 앞두고 '요즘 여름휴가의 답' 기획전을 15일부터 약 7주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페이백 이벤트 및 카드사 청구할인 등의 최대 57% 혜택으로 여름휴가를 준비할 수 있는 역대급 혜택을 마련했다. 이 기획전을 통해 여름 여행 상품을 예약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최대 50% 페이백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결제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200만(3명), 125만(3명), 75만(3명) 하나투어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한다. 1원 이상 결제한 고객이라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포인트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7월2일까지 응모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7월12일이다. 카드사별 결제 혜택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5월 31일까지 하나카드 100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 원의 청구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어 6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롯데카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페이와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뉴스**

버거킹 1만6500원 '콰트로 버거' 인기...첫주 예상 판매량 150% 달성

일주일 간 예상 판매량 훨씬 웃도는 성과

지난달 버거킹이 선보인 신제품 '콰트로 맥시멈' 버거가 패스트 푸드 메뉴 중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판매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거킹은 지난달 24일 출시한 '콰트로 맥시멈 미트 포커스트 에메이징 얼티밋 그릴드 패티 오브 더 비기스트 포 슈퍼 미트 프릭(콰트로 맥시멈)' 2종이 출시 첫 주 일주일 만에 예상 판매량의 150%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패티가 3장 들어간 '콰트로 맥시멈 3'과 4장 들어간 '콰트로 맥시멈 4' 2종이다. 39자의 긴 네이밍도 화제를 모으며, 출시 첫 주인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간 예

상 판매량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버거킹측은 구체적인 판매량과 판매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제품명과 함께 이 햄버거의 가격도 화제가 됐다. 가격은 단품 기준 각각 1만4500원, 1만6500원이다. 음료와 감자튀김 등이 함께 나오는 콰트로 맥시멈 세트는 가격은 1만6500원, 1만8500원이다. 프렌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가격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버거킹은 외식 경험에서도 재미를 추구하는 '퀵슈머'들을 겨냥해 진행 중인 소비자 이벤트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총 39자의 신메뉴 풀네임을 빠르게 입력할

수목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이번 이벤트에는 2주 동안 8만 명이 넘는 고객이 45만 회 이상 참여하는 등 신제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최이슬기자**



오늘의집, '홈스타일링 가이드' 운영



손쉽게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을 소개하는 '홈스타일링 가이드'가 나왔다. 라이프스타일 앱 오늘의집은 조명 등 공간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는 홈데코 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유나기자**

28일까지 진행되는 홈스타일링 가이드에는 국내외 인기 홈데코 브랜드 26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브랜드별로 엄선한 대표 상품들을 최대 7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오늘의집은 고객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홈스타일링 가이드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최대 35% 할인 쿠폰을 추가 지급한다. 홈스타일링 가이드에서는 조명, 플라워·식물, 홈데코의 3가지 세부 테마에 따른 상품이 소개된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작은 변화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꿔주는 홈데코 관련 상품 수요가 늘어 홈스타일링 가이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KT 고객 최대 50% 할인"...도미노피자, 프로모션 진행

오는 31일까지 방문 포장 시 혜택

도미노피자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KT 고객 대상으로 방문 포장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KT 달달혜택'은 KT 아

이디 달 월 1회, 2만5000원 이상 4만5000원 이하 주문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할인 금액만큼 KT 포인트가 차감된다. 또 '달달초이스' 이용 가능 횟수(통합 월 1회, 타 제휴사 이미 이용한 경우 이용 불가)에서 차감되며 오프라인 주문 시에는 혜택을 받

을 수 없다. '달달 초이스'는 KT에서 제공하는 멤버십 혜택으로 도미노피자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도미노피자에 큰 성원 보내주시는 KT 고객을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뉴스**